여러분이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 있으면 내놔 보십시오

☞ 19면에서 계속

떻게 부처님 세계의 맛을 볼 것입니까.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이러고 있지요.

세 단계의 또 한 가지를 말하자면, 여러분이 타 죽을까 봐 못 건너가는 데가 있어요. 우주의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도 불바퀴입니다. 우리 마음들이 돌아가는 것도 불바퀴예요. 생명의 근본이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바로 사대가 무너지면 다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내 마음은 그대로, 자기 그릇대로 차원대로 그냥 가는 거지요. 또 어디 가서 태어나야 하는데, 즉 말하자면 소 부부가 사는 데로 들어가질 않나, 새 부부가 사는 데로 들어가질 않나, 짐승들 곤충들 사는 데로 들어가질 않나. 자기가 모르니까, 귀도 먹고 눈도 멀었으니 어찌 그것을 다 보고 들어가리오, 이거예요. 합류화될 것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깡통은 깡통대로 한데 모이고 금은 금대로 모이고 무쇠는 무쇠대로 모이죠. 우리 사람 사는 것도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모이고 공업가는 공업가대로 모이고 상인은 상인대로 모이고 이러죠? 그렇게만 얘기해도 알겠죠. 그냥 자연적으로 모이듯이 그렇게 모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이 그 그릇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새집에 들어가질 않나, 독사집에 들어가지 않나, 염소집에 들어가지 않나, 개집에 들어가지 않나…. 도대체 이렇게 몰라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물질적인 의식들을 다 놓는다면, 지수화풍으로 흩어진다 하더라도 마음의 그 첨단을 알고 한 생각 끄덕하면 벌써 건너가 있고, 끄덕하면 저기 가 있고, 만 리라도 끄덕하면 가 있고, 내 몸 아닌 내 몸이 수없이 입자가 되고 분자가 돼 가지고 수없는 중생을 건지고, 수없는 중생을 제도하고, 수없는 중생을 이끌어 가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겁니다.

자력은 인간의 마음으로 쓰기 때문에 한계가 없지만 자석은 물질이라 쓰는 데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한계의 도리를 알 때 무심의 도법으로 가만히 앉아서 이 세상만사를 한 주먹에 놓고, 보려면 보고 말려면 말고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고 자유자재하더라 이런 거지요.

그러니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서 자유자재하더라 이거지요. 모두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남의 자식도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남의 부모도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나 아님이 없으니 풀 한 포기도 내 생명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 이심전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진리가, 끝 간 데 없는 진리가 바로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로구나. 마음 자체의 씨가 바로 보배로구나. 그러면서도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 허공을 쥘 수 없고 볼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그 마음이 그렇게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기 때문에 묘법을 이루고 나가는 겁니다. 천지의 근본도 인간의 근본에 바로 직결돼 있고 가설이 돼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직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요, 아까 얘기를 했어도 가만히 보니까 그냥 희미하게 가는 것 같아요. 허이구, 참.

여러분 육신 속에 들어 있는 그 마음들이, 의식들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공장이라고 해도 되지마는 세계라고 해도 됩니다. 위라는 세상, 장이라는 세상, 간장이라는 세상, 소장이라는 세상, 이름이 그렇게 많아서 이걸 세계라고 하죠. 그냥 여러분을 해코지하게도 나오고 남을 해코지하게 마음을 일으키게도 하는 모든 의식들을 침착하게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맡겨 놓고, 거기에서 나온 거니까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다 놓고 나는 종노릇을 하십시오. 몸은 종노릇을 하면서 그 다스리는 마음은 항상 한마음으로 돼 주고 겸손하게 돼 주시란 얘깁니다.

아니, 내 몸속에 있는 진드기가 보기 싫고 촌챙이가 보기 싫고 거위가 보기 싫고 이렇다면 어떻게 내 몸을 이끌고 다닙니까? 그러니 그것도 존중해 줘야지요. '아, 그것도 나로구나. 나를 끌고 다니는 바로 너로구나.' 하고서 한마음으로 인정을 해 줘야지요. 여러분이 인정을 해 주고 '너희가 모두,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나로구나.' 하고 인정을 해 줘야 자기 죽이는 법이 없죠. 자기가 자기 죽이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그걸 명심하시라 이겁니다. 자식도 잘못하면 "저 도둑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믿고 가르쳤더니 나를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그것도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는 주는 게 부모지 받는 게, 달라고 하는 게 부모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십시오. 거미의 부모도 자식들한테 다 주고 자기는 껍데기로 화해서 그냥 말라서 가루가 돼 버립니다. 어머니는 알을 낳아 놓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다 주고선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낌없이, 자식이 죽게 되면 생명을 대신해 주리만큼 그렇게 자식들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자기는 껍데기로, 껍데기로 껍데기로 이렇게 차츰차츰 변해 갑니다. 그렇게 자기는 껍데기만 남아서 나중에 함께 가자고 해도 자식들이 안 가지요. 몸뚱이도 가지 않죠. 자기 따라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아무리 부부지간에 사랑했다, 아무리 재산을 사랑했다, 집을 닦고 깨끗하게 잘해 놨다, 몸뚱이를 깨끗하게 씻고 바르고 온통 귀걸이를 달고 잘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여러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캠핑 와서 그저 조금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놀다가 가기 위해서 바람처럼 구름처럼 풀잎의 이슬처럼 왔다가도 그냥 스쳐 가듯이 그냥 또 다 버리고 가는 거죠. 애들이 공기를 놀다가도, 내 땅 네 땅 하고 놀다가도 저녁때 엄마가 부르면 으레 다 버리고 툭툭 털고 일어서듯이 인생도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을 깊이 해서 무한의 도리를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현실에서도 남의 뿌리를 싱싱하게 도와주십시오. 뿌리를 도와주면 이파리도 가장구도 싱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한마음으로 도와주면서 건져 주면서, 자기가 예쁘다고 뿌려 놓은 씨도 건지면서, 사랑하는 부부지간에도 서로 도와 가면서 조화를 이루고 화목하게 한다면 젊은이들이 아마 스스로 첨단의 심성 과학자가 돼서 우리나라를 능히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주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할 때, 저 풀 이파리 하나도 한마음 아닌 게 없이 그렇게 될 때 그 한마음 속에서 일꾼이 나온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나라에 일꾼이 생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결처럼 스쳐 가는 그러한 논다니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만이 생겨서,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고생하듯 우리 국민은 서로가 고생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자식들도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잘하도록 만드는 자식들이 되어야만이 우리 국민 속에서 그런 부모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종성에도 있듯이 여러분의 마음들이 모두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이라면 참, 앞으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화목한 꽃이, 인꽃이 필 것입니다. 그리고 꼭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바담 풍" 하더라도 여러분은 '바람 풍'으로 알아들으십시오. 나는 두서없이 말했더라도 차근차근히 생각하셔서 내 한마음을 그렇게만 한다면 자식들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요, 내 부모 조상들도 길을 찾을 것이요, 묵은 빚을 갚을 것이요, 햇빚을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그 마음과 조상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 풀 한 포기의 마음이 둘이 아니게 모두 합쳐서 나의 마음속에 찰나찰나 들고 나시니 어찌 내가 당당치 않으리오.' 하고서 나아가실 겁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난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양해하시구요, 잘 배우신 양반들이 침착하고 체계 있게 생각하시고 한번 써 놨다가 또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다스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다음은 오늘 준공법회에 즈음하여 먼저 무애 스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무애 스님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 큰스님 말씀을 한 시간 가까이 들었습니다만 전혀 지루하지 않고 덥지 않은 연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또한 이렇게 다 밝으니 아마 많은 감응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게 공덕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맹이부터 시작하면 껍데기는 저절로 커지지만 껍데기부터 커지면 알맹이가 들지 않듯이 우리 도량도 공부하시는 스님들과 신도분들이 있음으로써 더 커지게 되는 이런 계기를 갖는 것 같습니다. 복 짓는다고 쫓아다니면서 한 시주는 공덕이 되지 않겠지마는 한마음으로 시주한 것은 참공덕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김 선생님께서, 전에도 이곳의 중창불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주해 주셨으니 이 도량에서 모든 분들이 수행 정진을 열심히 하신다면 아마 도량이 더욱 빛나게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는 복 짓는 일이라고 강요해서 하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우러나셔서 동참해 주시면 아마 두루두루 공덕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공부하는 데 많이 동참하시어 각자가 무량 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내가 잠깐 말귀를 잡아야 되겠군요. 여러분이 '내가 요만한 시주를 하면 그만큼 나한테 오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무애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무주상 보시를 한다면 여러분 앞에 무주상 보시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이든 광주든 본원이든 여기든 어디고 간에 불사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어디든지 무주상 보시로 하시면 무주상 보시로 갈 겁니다. 여러분이 해 놓은 것은 여러분이 갖지 않는 게 없으니 누구를 줬다 안 줬다 할 것도 없죠.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1년 7월 14일 국내지원 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음과 조상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
풀 한 포기의 마음이 둘이 아니게 모두 합쳐서
나의 마음속에 찰나찰나 들고 나시니
어찌 내가 당당치 않으리오.

일일시호일

가족 위해 버틴 13년 한국살이, 신장암 앞에 멈춰
"다시 일해 아내와 두 아들 돌보고 싶습니다"

스리랑카 출신 만줄라 씨, 홀로 한국서 생계 부양
병원비 4000만 원…앞으로 치료도 큰 부담
한 가정 무너지지 않도록 불자들 도움 절실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